

추석연휴 가족여행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16일 오후 광주공항에서 제주를 가려는 관광객들이 비행기 탑승에 앞서 화물을 부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지평동 한민영(50)씨는 추석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민이 깊다.

추석 연휴 때 가족 동반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7개월 전부터 계획했는데, 취소를 해야 할지 그대로 가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씨는 "예약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찾아올 것 같아 미리 호텔·렌터카 등을 예약했는데, 최근 정부의 추석 이동 자제 권고와 코로나 확산세 등을 고려하면 편지 않지만 취소 수수료 등을 감수해야 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5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때 여행을 계획한 지역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예약을 해놓은 상태지만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권하고 있는데, 사군 지방자치단체들도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어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전남지역 숙박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오는 30일 지역 유명 콘도·호텔, 골프장 평균 예약률이 90%를 넘어섰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하는 것과도 사뭇 다른 모양새로, 객실 수요가 폭증했던 지난 4월 말~5월 초 '황금연휴' 기간과 비슷하다.

진도 대명리조트 솔비치는 추석 연휴기간인 30일부터 5일까지 전체 576개 객실 예약이 모두 끝났다. 무려 5일 간 연속으로 잡힌 객실도 적지 않다.

여수의 디오션 리조트도 연휴 마지막날

"오래 전 예약 했는데" ... 코로나 재확산에 취소 여부 고민
추석 연휴 유명 콘도·호텔 등 평균 예약률 90% 넘어

제주 여행객 19만명 육박 ... 여행사 등에 문의전화 쇄도

인 10월 3~4일을 제외하면 128개 객실 예약이 마무리됐다.

리조트측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이 어렵다보니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연휴를 즐기려고 객실 예약을 문의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면서 "연휴가 가까워질수록 문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내선 항공편들도 제주행 피크타임 티켓은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주항공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평소 10~20% 수준인 예약률이 추석연휴에는 전 노선 예매율 60%까지 치솟았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추석연휴 전체적인 예약률은 50% 수준이지만 추석연휴 시작일인 30일 광주발 제주행 예약률은 70%를 훌쩍 넘긴 상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국제선이 감소하면서 국내선 항공편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예년 명절 여행 수요와 비슷하다"는 말이 나온다.

관광업계도 제주도 여행객이 지난해 명절 때 여행객 19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여행객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9~10월 집중적으로 풀린 여행지 할인권도 여행수요 증

가에 한몫을 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동 자제를 권고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자칫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여행사 등을 중심으로 여행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지 저울질하는 여행객들의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당장, 5월 황금 연휴와 8월 휴가철, 광복절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들어 여행을 취소하려는 문의전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행사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예약 취소를 염두에 두고 문의하는 여행객들 전화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수수료 부담도 적지 않아 취소를 망설이는 여행객들도 많다. 9~10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중에 대량으로 풀린 할인권으로 예약한 경우 취소 시 수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여행사측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이 파악한 광주·전남 국내의 여행상품 및 숙박, 항공여행객운송서비스와 관련된 '계약해제·위약금' 분쟁 소비자상담 건수도 1041건(광주 605건, 전남 436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9건보다 126% 급증한 것으로, 이들 대부분이 취소 수수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한 상담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여행을 통한 국내여행 계약의 경우 당일치기 여행은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행개시 2일 전에도 전액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고 요일은 10%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또 1일 전에는 20%, 당일 30%만 내면 가능하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숙박여행은 5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위약금 발생은 당일 여행과 같다.

숙박업소 예약도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7일 전까지 취소하면 총요금의 10%가 공제(주말은 20%)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5일 전에 취소하면 30%("40%), 3일 전이면 50%("60%), 하루 전과 당일 80%("90%)를 위약금으로 공제된다.

코로나19기간전문의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는 "지역간 이동이 이뤄지면 전국적 대유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급적 이동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여행을 간다면 다수가 모이는 곳을 피하고 숙박 시설 안에서도 공용 공간이나 부대시설 사용을 자제해 타인과 접촉 빈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스가 일본 총리 선출... "아베 계승"

내각 출범 각료 대거 유임
문 대통령, 축하 서한



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친인식(親任式)과 각료 인직식을 거쳐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신임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계승을 내세우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1) 자민당 신임 총재가 16일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됐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행정수반인 총리가 바뀌는 것은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12월 이후 7년 8개월여 만이다.

일본 하원 격인 중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아베 총리 사퇴에 따른 새 총리 지명선거를 해 과반 지지를 얻은 스가 총재를 제99대 총리로 뽑았다. 스가 신임 총리는 중의원에서 총투표수(462표) 가운데 과반 선(232표)을 크게 웃도는 314표를 얻었다. 이어 실시된 참의원(상원) 지명선거에서도 스가는 총투표수(240표)의 과반인 142표를 얻었다.

스가 신임 총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오후에 보낸 서한에서 "스가 총리의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표현하며 "언제든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됐으며, 일본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연합뉴스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에 치르자"

박병석 국회의장 "국력 소모 막아야"



중심의 상시 국회로 정치 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며 "국회의장은 '정책형'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16일 화상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후년 상반기 두 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결론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과도치않게 막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비정비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선거의 시간'이 '국회의 시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이후 "집권여당이 약속한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조정을 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당론을 최소화하고 상임위

이어 당 대표 월례회동, 중진의원 간담회까지 정례회해 협치의 채널을 갖겠다"며 "소통이 쌓이면 협치 기반도 두터워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한다"며 "국회 사무처는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국회회담도 차분히 준비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남북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홍재의 세상만사 ▶2면

광주·전남 코로나19 진정세 ▶6면

KIA 내야 달구는 김태진의 에너지 ▶18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August 20, 2020

Forbes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광주의 새로운 심장으로 떠오를 지식산업 핫플레이스!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융자 가능
-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원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지산·창고 21실 | 운동 및 문화집회시설 3개소

8월 20일 오픈
T.372-6666

홍보관: 광주 서구 마죽동 165-14